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재생에너지의 송전을 위한 매사추세츠 전력망 현대화 작업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우려했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매스 주민들 전기요금 인상에 분노 "너무 과해 지쳤다"

주정부 주민 의견수렴 기간에 요금 인상 분노 쏟아내
소득대비 유틸리티 요금 상한제, 소득대별 다양할인 도입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 이 전기요금 인상에 분노하고 있음이 드러났
력망 현대화 전기 요금 인상 건을 두고 주정부 다.
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 스테이트하우스뉴스서비스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 각지의 중저 소득층 주민들은 과도한 전기요금, 난방요금, 식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피츠필드에 거주하는 싱글맘인 데시아 클락씨는 "전기요금은 한달에 \$250이며, 겨울철 난방비용으로 한달에 \$500를 쓴다. 이외에도 자동차 월상환금, 보험 ▶▶7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1월 집값, 역대 최고가

구매자들은 금리 인하와 집값하락 바래
주택시장 집값은 높아지고 금리는 그대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 1월 매사추세츠 주택 가격이 역대 1월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3년의 매물부족 고금리 상황이 여전한 결과다. 거래량은 지난해 1월보다 소폭 증가하며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모도 보였다.

캐서디 노트 워렌그룹 홍보 디렉터는 "2023년 매사추세츠 부동산시장은 낮은 매물과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로 시달렸으며 이는 여전히 구매자들의 앞에 드리워져 있다" 고 표현했다.

그레이터보스톤중개인연합(GBAR)에 따르면 그레이터 보스톤에서는 지난해 1월 512채의 주택보다 1.4% 증가한 519채의 단독주택이 판매됐다. 2021년 883채가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40%, 2022년 755채에 비하면 30%가 낮아진 것이다. ▶▶5면으로 계속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입찰.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3월, 4월 온라인 무료강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Korean Heritage Symposium)이 3월과 4월 목요일 격주로 동부시간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열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심층 깊은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Zoom) 무료 교양강좌다.

강의일정은 3월 7일 한국사찰, 3월 21일 분청사기, 4월 4일 탈춤, 4월 18일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Peabody-Essex Museum, Salem, MA) 한국 소장품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3월 7일 첫 강의는 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 사찰의 건축양식과 쌍불탑의 역할 및 불교의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예일대학, 오하이오대 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연지 박사가 강의를 맡는다.

3월 21일은 분청사기의 역사와 기법에 대해 시카고 대학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미술사 박사과정 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



관 (Asian Art Museum)의 최윤지 큐레이터가 강의한다.

4월 4일에는 한국탈춤강의가 있다. 강의를 맡을 한예중 명예교수 이미원 박사는 피츠버그 대학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한국탈춤 주제로 연극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연극학회 회장, 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발간한 탈춤의 전문가이다.

4월 18일에는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의 한국미술 큐레이터로 재직중

인 김지연 박사와 함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들을 살펴본다.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은 2025년 새로 단장한 한국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줌(zoom) 미팅과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접속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스톤 한미 예술 협회 (<https://www.kcs-boston.org>) 웹사이트에 가서 "등록(register)" 버튼을 누르면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피아니스트 NEC 손민수 교수, 피아노 독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깊이 있고 시적인 표현을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 (뉴욕타임즈),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 피아니스트인 손민수 교수의 독주회가 오는 3월 8일(금) 오후 8시에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의 조던홀에서 열린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헝가리 태생의 작곡가이자 최고의 연주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Consolations, S. 172)과 <초월적 기교 연습곡> (Transcendental Études, S. 139)을 연주한다.

손민수 교수는 부조니, 클리블랜드, 호넨스, 루빈스타인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 입상하여 주목을 받았었다. 남미와 북미, 유럽, 이스라엘,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주요 무대와 페스티벌에서 많은 연주를 했으며, 2011년에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호넨스 레이블로 출판하여 뉴욕타임즈에서 그 해의 최고 클래식 음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보스톤글로벌브는 그를 '피아노를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청중을 찾으며, 그들에게 보람을 선사

할 아티스트' 라 표현했다.

그는 또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총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했고, 이를 통영 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녹음하였다. 그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은 2020년에 소니 클래식 레이블로 출판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연주 활동 못지 않게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온 손민수씨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지난 해 가을부터는 모교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가 주최하며, www.ChinesePerformingArts.net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명의 학생에게 무료 입장권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연주회는 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가 주최하며, www.ChinesePerformingArts.net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명의 학생에게 무료 입장권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4월 8일 미국 전면 개기일식, 뉴잉글랜드에서도 본다

매사추세츠 부분 일식 관찰 가능 뉴잉글랜드 북쪽에서는 전면일식 경험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면일식이 2017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온다. 4월 8일 전면 일식은 텍사스에서부터 시작해 중서부를 지나 인디애나폴리스, 클리블랜드, 버팔로, 업스테이트 뉴욕, 그리고 버몬트, 메인 그리고 캐나다의 번스윅을 잇는 경로를 지나게 된다.

경로에는 달라스를 비롯한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가 포함된다. 일식은 이들 도시를 지나며 지나며 약 4천만명에게 그 완전한 자태를 엿볼 수 있는 행운을 선사한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버몬트와 뉴햄프셔 그리고 메인 북부 지역의 주민 또는 방문자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사(NASA)에 따르면 버몬트의 경우 벌링톤과 몬트펠리어 등지에서 볼 수 있다. 뉴햄프셔에서는 피츠버그, 메인에서는 카리브와 프레스크 아이슬 등지에서 목격 가능하다.

나사의 일식 전문가의 프레드 에스페낙 박사는 자신의 웹사이트인 eclipsewise.com에 2024년의 일식 진

행 경로를 설명했다. 2024년 전면 일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4분 28초로 비교적 길다.

매사추세츠 인근에서는 전면일식이 아닌 부분일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굳이 뉴햄프셔 등 북부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매사추세츠에서는 약 90%의 일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2017년에는 60%여에 불과했었다.

전면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를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 발생된다. 하늘은 새벽녘이나 석양처럼 어둡게 변한다. 달이 가리는 그림자로 인해 지구 전체에는 각기 다른 모습의 일식을 보게 된다. 일식의 속도는 시간당 1500마일이며 북쪽으로 갈수록 더 빨라진다. 전면일식을 볼 수 있는 지대는 약 100-123마일 넓이의 띠를 이루는 곳으로 완전히 달이 해를 가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일식은 금환 일식(Annular Eclipse)과 다르다. 보통 금환 일식은 바깥 부분의 태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보여 이를 “불의 반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일식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을 때만 관찰기 때문에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특수 안경을 써야 한다.

가장 큰 관건은 맑은 날씨여부다. 비록 전면일식을 관측하기 위해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만약 구름이 끼게 되면 일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일식의 순간에는 아주 어둡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4월 8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4월 초에 알아보고 행선지를 정해야 한다.

보스톤글로브의 기상학자 엡스틴은 메인의 카타딘 마운틴(Katahdin Mountain)이 가장 일식을 경험하기에 최고의 장소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관측으로 당시 뉴잉글랜드의 날씨는 구름이 낄 확률이 많다고 말하고 남쪽일수록 맑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전면일식 경로 주요 도시 (빨간색 뉴잉글랜드 지역)

— Arkansas: Conway, Hot Springs, Jonesboro, Little Rock, Texarkana



2017년 7월 21일 오레곤주 마드라스에서 촬영한 전면개기일식 장면(사진=Hyunah Jang Photography)

— Illinois: Carbondale, Effingham

— Indiana: Bloomington, Evansville, Indianapolis, Muncie, Terre Haute

— Kentucky: Paducah

— Maine: Caribou, Presque Isle

— Missouri: Cape Girardeau, Poplar Bluff, Sikeston

— New Hampshire: Pittsburg

— New York: Buffalo, Lake Placid, Massena, Niagara Falls,

Oswego, Plattsburgh, Rochester, Syracuse, Watertown

— Ohio: Akron, Cleveland, Dayton, Elyria, Marion, Parma, Sandusky, Toledo

— Oklahoma: Broken Bow, Idabel

— Pennsylvania: Erie, Meadville

— Texas: Arlington, Austin, Dallas, Fort Worth, Garland, Killeen, McKinney, Plano, Round Rock, San Antonio (northwest only), Texarkana, Tyler, Waco

— Vermont: Burlington, Colchester, Middlebury, Montpelier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뉴잉글랜드 음악원 문화융합연구소 국악 워크숍

조미나 교수 발표, 전통예술원 연주자들도 참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음악원(NEC) 문화융합 연구소(The NEC Intercultural Institute)는 3월 7일 저녁 7시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홀 내 켈러 룸(Keller Room)에서 국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풍물놀이 및 기악곡을 포함한 한국 민속음악, 정악, 현대적 해석이 담긴 민요 등 좀

더 다채로운 장르가 소개된다. 조미나 교수가 직접 아쟁과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며, 한국전통예술원 소속 전문 국악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해 연주한다.

워크숍에 참가하는 전통예술원 연주자들은 풍물 프로젝트 앙상블, "더울림" : 박지혜 (설장구, 쟁과 리/지도자), 조미나 (장구), 김선미(북, 쟁과리, 소고춤); 정악 앙상블:

김선미 (해금), 김경선(가야금); 국악재즈 트리오: 조미나(피아노), 김유나(모던 아쟁), 김경선(가야금/장구); 산조: 조미나 (가야금, 아쟁).

워크숍의 발표자 조미나 교수는 에머슨대학교에서 매 학기 한국음악워크숍을 진행하며, 문화융합연구소에는 2019년국악 재즈 소사이어티 구성원들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민속음악 워크숍을 선보였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 음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 관람이 가능하다.

조 교수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보스턴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음악학자이자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다. 현재 에머슨대학교 공연 예술 학과 협력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악 재즈 소사이어티와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의 대표 및 음악감독이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켈러 룸은 조던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290 Huntington Ave, Boston), 관련 정보는 뉴잉글랜드 음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necmusic.edu/events/nec-intercultural-institute-presents-gugak-korean-traditional-music>



The NEC Intercultural Institute presents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Thursday, March 7, 2024
7:00pm - Keller Room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Dr. Mina Cho (MM 2013, DMA 2019) will showcase a range of pieces from Korean folk and classical music traditions. And, she will present a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ensemble.

Participating Artists:
Mina Cho, presenter - Traditional Sanjo Ajseng, Gayageum, Janggu
Jiye Park - Janggu, Klawerigwan
Susee Kim - Haegum, Buk, Klawerigwan
Youna Kim - Modernized Ajaeng
Kyoungna Kim - Jeongak Gayageum



메사추세츠 학부모와 전문인을 위한 장애/특수교육 컨퍼런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장애어린이연맹(Feder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CSN)은 3월 9일 비전오브커뮤니티(이하 VOC)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VOC는 메사추세츠주에서 열리는 장애/특수교육 컨퍼런스 중 가장 대규모이며, 워크샵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컨퍼런스 이전이나 이후에도 다른 학부모들 및 전문인들과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참여는 큰 도움이 된다.

3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중언어 담당자인 최 한세진씨가 진행하는 "FCSN 101: Practical Guides for Korean Community" 워크샵이 마련되어 있어 관심있는 한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8일까지 주중에서 여러 프레젠테이션이 마련되어 있다. 40여개에 가까운 프레젠테이션은 이후 3개월 동안 다시 보기 및 새로 찾아보기가 가능하다.

최 한세진씨는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스피커 중 한 명인 Dan Bergmann의 유튜브 클립 꼭 보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어렸을 때 말을 못했던 댄은 12살 어느 날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learned to think)"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하버드 평생교육원(extension) 졸업식장 연사로 서게 된 그는 "No Communication"에서 이제는 "Master of Communication"이 되었다고 말한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재미과기협, 2024년 과학기술 분야 장학생 모집

3월 31일 응모 마감, 학부생 1천5백달러, 대학원 및 박사후 각 2천 달러 과학 및 공학 전공 학부생 30명, 대학원생 20명, 포스트닥 5명에 수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손용호)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SEA 장학금 신청 대상은 수학, 과학, 공학, 의약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에 한한다. 또한 지난해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Postdoc Fellowship 도 5명에게 수여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쳐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장학금 신청 시점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3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500 달러이다.

학부생 장학금에는 장학금 기부자들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19개의 Named Scholarships 을 비롯하여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임지훈 교수(전 카카오 대표)의 기부로 신설된 KSEA-Rim Scholarship이 10명에게 수여된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이광복)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KSEA-KUSCO 대학원생 장학금은 20명에게 각 2,000 달러씩 수여된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에게 지급되는 Postdoc Fellowship 은 5명에게 각 2,000 달러가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자들은 오는 8월 21일-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4) 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수여 받는다. 장학생 응모마감은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이력서 등이다.

KSEA 장학위원회(위원장 심정욱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는 신청자들의 성적과 에세이, 추천서 내용, 지역사회 봉사과 KSEA 협회 활동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은 웹사이트 <https://www.ksea.org/scholarship>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응시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KSEA 장학위원회 scholarship@ksea.org
▶온라인 신청 및 안내 : <https://award.ksea.org/scholarships>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1월 집값, 역대 최고가

▶▶1면에 이어서

올해 주택판매가 회복됐다기보다 2004년 이래 최소 거래량을 보였던 2023년의 바닥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 전역으로 확대해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 2022년 2,392채에서 올해 1월 2,393채로 사실상 그대로다. 다시 말해 주택 거래의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주택 가격은 역대 1월 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워렌그룹에 따르면 1월 매사추세츠와의 단독 주택 중간가격은 \$550,000로 지난 2023년의 같은 달 \$499,000에 비해 무려 10% 인상됐다.

그레이터 보스톤의 집값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레이터 보스톤중개인연합(GBAR)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820,000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나 치솟았다.

주택시장이 뒤틀려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매물은 적고 가격은 높게 만드는 이 같은 특이점의 주요인은 바로 모기지 금리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77로 지난 가을 8%에 비해서는 약간 약화됐으나 여전히 2021년에 비해서는 두배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우스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징조로 보고 있다. 모든 사이클은 바닥을 친 이후에는 상승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셸우 시장 '정치적 지뢰밭' 보스턴건축법 개정 승부수

전임시장들이 터부시 했던 보스턴시 구역 규정 개혁 지역주민 그룹 강력 반발, 우시장의 재선 위협에 정면승부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셸 우 시장이 '정치적 난제' 로 손꼽히는 구역 건축규정(Zoning code) 개혁에 수술칼을 들이댔다. 각 지역구의 터줏대감 지역주민그룹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전임 시장들이 모두 기피했던 보스턴시 구역 규정 개정을 실행하는 정치적 모험을 불사한 것이다.

전임 마티 월시 시장은 달랐다. 시장 재임 시 자메이카플레인과 락스베리의 사용도가 낮은 용지를 다시 재구역(rezone)하여 수천호의 신규 주택 건설을 계획했다. 최초 BPDA가 이 개발계획을 승인하자 어포더블 하우스 관계자, 지역주민 협회, 남비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등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도시계획(Planning) 미팅에선 드러눕는 시위를, 시청사에서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강한 반발에 놀란 당시 마티 월시 시장은 이 BPDA 승인 안을 시의 구역 위원회(Zoning Commission)에 부쳐 최종 법안으로 완결하는 마지막 조치를 취하지 않고 흐지부지 지나쳤다.

오늘날 250에이커에 달하는 자메이카플레인/락스베리 주택개발 계획은 여전히 공중에 뜬 상태다. 다만 시장에게 하나의 비공식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스턴 시장이 특정 지역의 건축 지형도를 바꾸려 할 때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가진 지역주민 조직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반면교사 지침서다.

미셸 우 시장은 전임 시장 마티 월시가 우회했던 정치적 지뢰밭에서 직진을 선택했다. 자메이카/락스베리처럼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오래된 시 전 지역의 구역 규정

(Zoning code)을 포괄적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미셸우 시장이 추진하는 새로운 구역 규정(Zoning code)은 과거 "건축물의 사용도 중심의 법률" 즉 업무용, 주거용, 창고용 등의 건물의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형태 즉 건물의 크기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이다.

새로운 건축법 첫번째 단계는 "광장과 거리" 이니셔티브다. 시 도시계획부서가 대중교통 정류장(전철역)간의 도로에 어떤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지 법안 초안을 만든다. 이는 월시 시장 때부터 시작된 찰스타운 및 기타 지역의 지역건축개발에 맞춰서 추진된다. 우 시장은 이들 중 상당부분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스턴의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구역 규정은 수십년간 사용되어 현대적 요구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또 건축 추진 과정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집 뒤뜰의 데크(deck)이든 고층 빌딩이든 거의 모든 건축계획은 그 지역의 기존 구역개발규정과 다른 특례규정에 따라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이 같은 의견 개진 과정을 단순화하는 경우 과거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던 지역주민 그룹과 각 옹호 그룹들이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불보듯 뻔하다. 이들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시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고 지적한다. 반발하는 이들의 표를 의식하게 되는 시장은 늘 양보해왔으며 이리다 보니 구역 규정의 개혁이 뒷전으로 미뤄져 왔다. 우 시장과 개발업자들은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성



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현대의 규정은 개발업자들이 좀더 법의 규정에 따라 짓도록 허용하고 있어 신규 건축이 용이하다. 과거처럼 주요 개발프로젝트가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잠재적인 법적 장벽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업자들은 좀더 예측이 가능한 건축 규제를 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돈이 걸려있기도 하다. 건축업자들은 지역 주민그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공공예술, 어린이 스포츠팀 등의 "지역사회 혜택" 항목에 수십만달러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세븐힐시빅협회는 도체스터 모리시 블러바드의 7개 빌딩건축을 추진과정에서 \$750,000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 협회는 아무런 단서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풍부한주택 매사추세츠 그룹의 캔슨 베나 나브 대표는 모호한 지역사회 혜택시스템은 "문제가 많고 윤리적인 의문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 시장의 "광장 및 거

리" 이니셔티브는 구역규정을 개혁해나가는 데 "작지만 아주 중요한 조치" 라고 평했다. 그는 "지역주민그룹의 비공식적인 비토 권한을 없애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미셸 우 시장에게 지역주민 그룹들은 강력한 정적이 될 수 있다. 이 그룹들은 비록 전체 유권자 대비 소수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에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보스턴글로벌은 이를 '정치적 지뢰밭' 이라고 표현했다.

우 시장은 건축규정개정이 정치적으로 위험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은 더 많은 신규 주택공급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우 시장은 "모두가 현재의 건축법이 문제가 많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많은 정치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고 인정했다.

우려처럼 보스턴보존연맹의 앨리슨 프레이지 대표는 벌써 날선 비

▶▶7면으로 계속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매스 주민들 전기 요금 인상에 분노 "너무 과해 지쳤다"

▶▶6면에 이어서

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 시장은 선거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론은 우시장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고 말했다. 엘리스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우시장을 지지했으나 “우리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 며 지금 당장 선거가 있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시장의 뒷발이었던 진보층의 이탈이다.

건축법에 대한 반발은 시 전역에서 일고 있다. 올스턴에서부터 이스트보스턴의 지역주민그룹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4개의 지역주민그룹은 편지를 보내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전제주의적 법제화 과정” 이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물 증축을 규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 그룹뿐만 아니라, 주택 건축 승인 진행과정에서 반대를 표해 자신의 이해를 충족해왔던 환경 및 노조 등의 많은 옹호그룹들도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많은 이해그룹들의 반대는 향후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시장에게 조언하는 올스턴 시 박람회 앤소니 드이시도로 회장은 “모든 커뮤니티에는 밀집 거주 빌딩을 허용하는 구역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비록 시가 이 같은 반대를 예상은 했겠지만 이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문” 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우시장은 계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해 왔지만 “변화를 두려워한다” 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시장은 이미 월시 전

임 시장은 건들지 않았던 민감한 문제들에 뒷걸음질을 거부하고 있다. 우시장은 올스턴과 매타팬의 개발계획을 구역위원회(Zoning Commission)를 통해 법제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보스턴 계획 및 개발기구(BPDA)가 셸리번 스퀘어 인근 고층 빌딩 건축 계획을 승인하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이들은 이 같은 반대를 통해 개발 계획을 좌초시켰었다. 그럼에도 우시장은 이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우시장은 전임 시장들에게서 악역을 담당했던 BPDA를 개혁해 시정부의 지휘하에서 움직이도록 했다. 논란의 중심이었기에 전임 정부들은 기피했었던 작업이었다. 우시장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기초를 만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들었다.

일부에서는 그의 대담한 움직임을 격려하고 있다.

전 시의원 맷 오말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건축하고 건축하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것은 본래적으로 불공정하며 좋은 개발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공정하고 간단하며 이해 가능한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고 지적했다.

뒷발의 반발에도 필요한 개혁이라면 추진하겠다는 미셸우 시장. 그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내년 선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료, 음식, 기타 생필품 등 생활비가 빠듯하다. 정말 매달 갚아야 하는 요금에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어떤 주정부 보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주정부에 보낸 편지를 통해 밝혔다.

4명의 자녀와 장애를 가진 엄마를 책임지고 있는 그는 “많은 주민들이 나처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같은 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해야 하기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제한적이다. 언젠가는 늘 이리뛰고 저리뛰는 부모의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를 기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트레비스 로저씨는 한달에 \$500에 달하는 전기요금 통지서를 첨부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달에 \$50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고 적었다.

“우리는 3명의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매달 주급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한달에 \$500이 넘게 지불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다. 나의 주급 실 수령액은 에버소스 요금보다 적다. 이 전기요금은 다른 여러 가지 월 생활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적었다.

로저씨는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이 송전비용이다.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 전등을 밝히기 힘들고 먹여 살리기 힘들다.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 적었다.

주정부는 1월 초부터 높은 에너지 비용의 실체를 조사해 과도한 부담이 가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 유틸리티사업부는 미팅을 열어 현재 고려중인 요금체계 변화를 설



명하고 이후 요금 변화시 유틸리티 회사는 반드시 저렴한 요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문서화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틸리티 사업부는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할인 수준을 제공하고 소득에서 에너지 유틸리티로 사용하는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린에 거주하는 블랭카 후루티아씨는 스페인어로 불을 밝히기 위해 음식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적었으며 수십명의 주민들도 유사한 편지를 보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전기가 스등 에너지 요금이 가장 비싼 주 중의 하나다. 주 유틸리티 사업부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모든 가정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 층은 다른 소득층이 소득에서 부담하는 유틸리티 비용 비율보다 3.5배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주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및 전기 냉난방 사용,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들과 사업체들에

게 전기 요금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전기차동차와 히팅펌프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전기화로 인해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일부 난방 사업자들은 여전히 가스난방도 유지토록 권장해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유틸리티 요금을 발생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 에너지지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2-23년 겨울 동안 오일난방을 하는 가정은 평균 \$2,023을 난방으로 사용했으며, 프로판 가스는 평균 \$1,492을 난방비로 사용했다. 전기 히팅은 \$907, 천연가스 히팅은 \$1,080이었다.

올해의 경우 오일난방은 10%인상된 \$2,220, 프로판은 8% 인상된 \$1,606, 천연가스는 0.5% 낮아진 \$911, 전기의 경우 20% 낮아진 \$862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는 히팅펌프 냉난방을 설치하는 경우 기기가 많이 저렴해 비싸지만 고효율 히팅펌프를 설치해야 가스 난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주정부의 최대 \$10,0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히팅펌프 기종은 Masssave.com에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며 냉난방 업체에게도 확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연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미 항공사, 국내선 여행용 수하물 요금 인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미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국내 여행용 수하물(가방) 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인상의 시작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다. 아메리칸 항공사는 여행용 수하물 요금을 현행 \$30에서 \$40으로 요금을 올렸다. 온라인 선결제 경우에는 \$35를 부과한다. 두번째 가방에 대해서는 \$40이던 요금을 \$45로 올렸다. 여행사 측은 이번 인상이 2018년 이래 처음 인상이라고 말했다.

AA가 인상하자 제트블루도 바로 수하물 가격을 올렸다. 제트블루는 여행 출발 전 24시간 안에 여행용 수하물을 체크인 하는 경우 첫번째 수하물에 \$45를 두번째 수하물에는 \$60을 각각 부과한다. 과거에는 \$35, \$50이었다. 다만 24시간 이전에 수하물을 체크인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유나이티드 에어도 수하물 가격을 \$40로 올렸으며 24시간 전 온라인

으로 결제하는 경우 \$35로 줄였다. 이는 과거의 비용보다 \$5씩 높은 가격이다.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지난 1월 수하물 가격을 인상해서 현재는 첫번째 수하물에 대해서는 \$35, 두번째 수하물에는 \$40을 부과한다

다만 델타 에어라인은 현재 여행용 가방에 대한 가격을 \$30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인상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미국내 대형 항공사 중 유일하게 수하물 체크인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제트블루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하물 가격인상으로 연료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수하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자사의 크레딧카드를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경우 보통 수하물 요금을 면제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은 수하물이 항공사들의 좋은 소득원이기 때

문이다.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항공사들은 9개월동안 54억달러의 수하물 요금 소득을 올렸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5%나 인상된 가격이다.

국제선의 경우 수하물의 요금 소득은 어마어마 하다. 아이디어웍스 컴퍼니와 카트롤러가 세계 20대 항공사의 수하물 소득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은 약 3백33억달러의 수하물 요금 수수료 소득을 올렸다.

수하물 수수료는 지난 2008년 대불황 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메리칸에어는 가방 1개당 \$15씩 부과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가솔린 가격이 떨어진 후에도 이들은 이 요금제를 계속 유지했다.

수하물 수수료 인상은 앞으로 손가방(Carry-on)의 이용을 늘릴 전망이다. 향후 머리 위의 짐칸 찾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스피릿 떠난 뉴햄프셔 맨체스터 공항, 브리즈에어 플로리다 취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저가항공인 스피릿에어가 뉴햄프셔 맨체스터보스톤리저널공항의 취항 중단을 예고했으나 또 하나의 저가항공인 브리즈에어가 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브리즈에어는 27일 올해 여름부터 맨체스터 공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브리즈에 따르면 이 항공은 6월 14일 맨체스터에서 올랜도로 연중 주당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씩 올랜도 직항을 운행한다. 또한 9월 5일부터는 경유지를 통한 탐파베이 노선도 운항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기착지는 시즌마다 운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으로는 6월 14일부터 월, 금 2차례 운항한다. 플로리다 포트마이아스에도 10월 2일부터 수요일 토요일 2차례 노선을 운항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찰스턴에 대한 수요가 많고 포트마이아스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브리즈 측은 설명했다.

브리즈는 현재 로드 아일랜드 워익공항, 메인의 포틀랜드 공항, 그리고 버몬트의 벌링턴 공항

등에 이미 취항하고 있다. 이들 공항은 복잡한 로건 공항대신 매사추세츠 남부나 매사추세츠 동북부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브리즈의 맨체스터 공항 취항은 보스톤 서북부 거주 한인들에게 좋은 플로리다 여행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플로리다를 취항해왔던 저가항공 스피릿이 오는 5월 8일을 마지막으로 취항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스피릿은 2021년 맨체스터 공항에 취항하면서 애용을 받았으나 제트블루와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항공기 부족과 여름철 올랜도 방문의 감소 추세로 인해 더 이상 운항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맨체스터 공항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벨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유나이티드에어라인 등이 취항하고 있으며 총 1백 30만 승객이 이 공항을 이용했다. 올 여름에는 선컨트리 에어가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국제공항 노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델타는 과거 맨체스터에 취항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항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자기 전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숙면 보장, 피로 회복)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 만큼 수면의 질이 나의 하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오늘 칼럼은 하루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한국어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최근 삼분요가 챌린지 (Day7) 를 찾아 따라해보시구요, 최근 영어유튜브 채널 (Yogasonghayeon)에는 같은 주제 (bedtime yoga)로 설명없이 음악과 편안하게 따라하는 노트킹 스트레칭 올렸으니 동작이 익숙해지면 병행해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채널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틈틈이 집에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피로 회복과 컨디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 척추 트위스트 + 가슴과 어깨어는 스트레칭 - 허리 어깨 통증 완화, 하체 순환, 부종 제거

1단계 사진처럼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고 왼 무릎을 밖으로 벌린 자세에서 오른 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통과 시킵니다.

2단계 천천히 등을 바닥에 대고 팔을 벌려 어깨를 열어주고 한손으로는 무릎을 지긋이 눌러 척추를 트위스트합니다.

3단계 2단계에서 그대로 머물러도 좋고 옆

으로 구부린 다리를 다 펼 수 있다면 퍼서 발목이나 발을 잡습니다.

4단계 깊고 차분한 호흡을 3-5회 이상 진행 하고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TIP! 두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지긋이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목이 편한 위치에서 머물러 주면 됩니다.



2. 퍼피 스트레칭 - 자세교정 (굽은 등, 거북목, 말린 어깨 개선)

1단계 무릎을 내린 테이블 자세에서 두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 가슴과 이마를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2단계 엉덩이를 무릎 위에 위치하게 하고 지게 퍼듯 최대한 길게 매트 앞으로 손을 뻗어 주면 됩니다.

3단계 턱을 바닥에 댄 수 있다면 턱을 대고 고개를 드셔도 좋고요, 팔과 어깨를 더 스트레칭하고 싶을 땐 두 손을 목 뒤로 가져가면 더 깊은 자극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TIP!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자기 전 뿐만 아니라 어깨나 허리가 빠근할때 자주 해주세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칭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성 앙투안 드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올해 서머타임 3월 10일, 미리부터 준비해야 쉽게 적응

3월에는 시계를 앞으로 돌려, 한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상당수의 주 서머타임 제거 고려 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월은 봄의 시작이자 서머타임의 시작이다. 시간이 한시간씩 앞당겨 지기 때문에 해가 길어 오후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시차에 의한 신체변화도 겪어야 한다.

올해의 서머타임은 3월 10일 일요일 2시가 한시간 앞으로 가 3시가 되며 시작된다. 따라서 한시간씩 지금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소위 말하는 서머타임 제트레그(Jet Lag) 또는 춘곤증을 심하게 겪게 되는 이유다.

서머타임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몇 차례 상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찬반론이 엇갈려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은 2023년 일광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통해 현재의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도록 했었다. 앨라바마의 마이크 로저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도

유사한 법안을 제안해 각 주가 서머타임의 적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수많은 주들이 서머타임의 영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도 현재 2가지 서머타임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애틀랜틱 표준 시간을 채택하고 서머타임의 변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SB 2015가 상정되어 있다. 하원에서는 두개의 법안이 애틀랜틱 표준시를 영구화하도록 하는 법안 HB 3051과 3103이 각각 따로 상정되어 있다.

주는 연방 교통부나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서머타임을 바꾸거나 1966년 제정된 서머타임법을 해제할 수 없다.

서머타임, 일광절약시간제는 1966년 동일시간법(Uniform Time Act)에 의해 법제화된 이후 그동안 몇차례 변화해 왔다. 지금은 3월

둘째주 일요일과 11월 첫째주 일요일로 정해졌다.

서머타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더 긴 저녁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즐기게 된다고 말한다. 추가로 한시간이 늘어 골프, 축구, 달리기 등 야외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산업도 활성화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시간으로 변화로 신체 시간과 하루 생체리듬의 단절을 가져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졸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머타임으로 초래되는 많은 사람들의 피로감의 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서머타임 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따라서 잠시간 감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질병통제센터는 약 3분의 1 정도의 미국 성인들이 서머타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팀을 소개한다.

-일주일 또는 3일 전부터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는 연

습을 한다. 1시간 시차를 극복하도록 미리 뇌와 신체에 자극을 준다.

-토요일에는 잠자리에 일찍 들어 최소한 7-8시간 정도 자도록 한다.

-아이들도 잠자리에 일찍 자게 한다. 항상 일정 시간에 자도록 생체 시간에 집중하면 약간 밝은 시간에도 잠자리에 들어 잘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도 2-3일 전부터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아이들의 짜증을 인내심 있게 받아준다. 아이들은 생체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짜증을 부릴 수 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으므로 서머타임 후 며칠 동안은 이를 참을성 있게 받아야 한다.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카페인 은 숙면에 방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대신 카모마일이나 따뜻한 우유가 더 좋다. 또한 너무 많이 먹는 저녁도 금물이다.

-운동은 최대한 잠들이 3시간전에 마치도록 한다. 너무 늦은 운동은 때로 불면증을 주기도 한다. 마



무리 운동을 스트레치 또는 요가를 하거나 따뜻한 목욕으로 마무리 하면 잠에 도움이 된다.

-아침에 해를 쏘이고 낮에 많은 햇살을 쬐면 잠을 깨게 하고 밤에 잠들기 쉽게 만든다.

-잠에 들기 전 밝은 불을 일찍부터 끈다. TV, 전화기 등을 침대 가까이 두지 않는다.

-너무 긴 낮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다. 잠깐의 잠은 도움이 되지만 긴 낮잠은 조절에 도움이 안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학비면제' 통큰 기부에 의대생들 감격... "인생 바뀌었다"

재학생 1천명 혜택... "빚더미 걱정 없어" "열정 가진 일 하겠다" 입학생 다양화 · 의술 지역환원 · 현지출신 의사육성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1조원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와 화제가 된 가운데, 이 통큰 기부가 재학생의 삶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의료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대학의 전직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93) 여사가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받도록 지원하고 싶다"며 10억달러(약 1조3천315억원)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6일 의대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거렸다.

고테스만 여사가 학생들로 꽉 찬 강당에서 기부 결정을 전했을 때 강당은 환호와 기쁨에 찬 비명으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율리야나 도밍게스 파에즈(24)는 "나는 캠퍼스에서 친구들을 모두 껴안았다"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터 캠벨 교수는 "학생들은 완전히 감동했다. 내 인생에서 20대가 그렇게 행복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학자금 빛 때문에 불가능으로 여겼던 꿈을 다시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갑자기 생긴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의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된 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경력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몇 달 전 의대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학위를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분의 일자리까지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던 1학년 샘 우(23)는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수익이 더 나는 전문과목을 택해야 가족과 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됐고, 내가 정말로 열정을 가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 의대의 등록금은 연간 5만9천달러(약 7천800만원)를 넘는다. 이런 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50% 가까이 졸업하는 데 20만달러(약 2억6천만원) 이상의 빚을 진다.

학생들은 주거와 식사, 시험준비, 시험등록 등에도 수년간 돈을 써야 한다.

지난해 미국 의과대학생은 평균 25만955달러(약 3억3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안고 졸업했다.

아인슈타인 의대는 예치된 기부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통해 학생 약 1천명에게 등록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은 봄학기에 기존에 냈던 등록금을 상환받는다.

무료 수업은 미래의 입학생과 지역사회 의료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이 학교 학부 학생의 절반은



환호하는 아인슈타인 의대 학생들

백인, 11%는 히스패닉 · 라틴계이며 5%만이 흑인이다.

이는 학교가 위치한 뉴욕 브롱크스 카운티 주민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히스패닉 · 라틴계라는 지역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에즈는 "가장 기대되는 점은 브롱크스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지원자의 증가를 보는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의과대학에 갈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드 안드라데(30)는 "미래 세대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흥미롭다"며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학비면제)은 정말이지 희망의 등대"라고 평가했다.

withwit@yna.co.kr

비트코인 급등 이유... 'ETF 승인 · 반감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지난달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만5천 달러에 근접하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에 비유하며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별 가치가 없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 5일 만에 20% 급등하며 2021년 11월의 사상 최고치 6만9천 달러에 성큼 다가섰다.

CNN방송은 요즘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다가오는 반감기 때문이라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분석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투자는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졌고 따라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감기란 새로운 코인이 유통되는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비트코인의 내장 기능을 말한다. 대략 4년마다 발생하며, 오는 4월로 예상된다.

반감기가 오면 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과거에도 반감기에 상당한 강세장이 나타났다.

새로운 투자나 그간의 이익 실현이 많아 비트코인 거래는 활발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는 28일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고 이 회사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게시글에서 밝혔다.

중환 코리안 비전얼 투어
www.junyo.co.kr

좋은사람들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달러 돌파...한때 6만4천달러 '터치'

하루 6천 달러 급등락 '널뛰기' 장세...역대 최고 6만9천달러 가시권 ...ETF 유입 자금, 공급량 크게 웃돌아...반감기 앞두고 기록 가능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8일(현지시간) 급등하며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넘었다. 한때 6만4천 달러선까지 치솟으며, 다소 이르긴 하지만 사상 최고점 경신의 기대를 품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 31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6% 오른 6만 158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전날 오후 11시께 5만7천 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2시간 만에 5만9천달러대 후반까지 뛰어오르며 6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어 4시간 뒤 다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6만 달러선을 뚫었고 이 기세를 이어가며 3시간여만에 6만2천달러대로 뛰어올랐다.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됐고, 한때 6만4천 달러대까지도 진입했다. 하루 새 5만8천 달러대에서 6만4천 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6천 달러가 뛰

어올랐다.

이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불과 1시간 반 만에 다시 5만9천 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이날 비트코인은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5만 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16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이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40%를 훌쩍 넘었다.

로이터 통신은 한 달 상승률로는 2020년 12월 이후 최고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역사적 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6만9천달러선 가시권에 두게 됐다.

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3차례 랠리의 발판이 돼 온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은 "비트코인 수요는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공급과



비트코인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물 비트코인 ETF는 2월 하루 평균 1억9천500만 달러를 유치한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하루에 약 900개의 코인을 생산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1개 가격을 6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약 5천400만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에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감안하면 발행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새로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 역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이 6만9천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저항도 예상되지만,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순식간에 매수와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코인베이스의 매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계좌를 보유한 이용객들은 "계좌를 열어보니 갑자기 보유한 비트코인 잔액이 '0'으로 뺏겼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엑스(X·트위터)에 "대규모 트래픽 급증 때문"이라며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서버가 과부하돼 연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친문' 흥영표, 기동민, 안민석 탈락, 이재명 영입인재로 대체

부평을 박선원 · 이동주 경선...안규백 '친명' · 비명 구분 아냐
성북을 김남근 · 오산 차지호 전략공천...현역 배제지역 영입인재 배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 부평을에 비명(비이재명)계 4선 흥영표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국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공천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 5곳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성북을에서도 비명계 재선 기동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기 의원은 옛 김근태계 핵심인 사중환명이다.

친명(친이재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서는 안 의원이 컷오프되고, 영입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용인갑에서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이상식 · 이우일 후보 간에 결선 없는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충북 청주서원에선 현역인 이장섭(조선) 의원이 이광희 후보와 역시 경선을 치른다.

아울러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조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과 탈당한 설훈(5선)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을이 전략지역으로 의결됐다.

공관위가 전략 지역 지정을 요청한 변재일(5선) 의원의 지역인 충북

청주청원도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다.

안 위원장은 흥 의원의 컷오프 이 유가 경쟁력 부족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컷오프된 변 의원이 계파 간 균형 때문에 자신이 희생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경쟁력과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런 것으로,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친명, 비명을 구분했으면 안민석과 변재일을 (컷오프)했겠냐"라며 "민주당에 프레임 걸기 위한 작동 같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 의원이 해당 의혹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 의원의 재심 요청에 대해서는 "전략공관위가 재심위원회는 아니어서"라고 말했고, 유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계 비례이수진 의원이 성남중원에서 경선 기회를 받은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확정으로 여야 본선 대진표 일부도 추가로 채워졌다.

ses@yna.co.kr, krsonga@yna.co.kr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7일 전략공관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세계 최저' 한국 출산율에 일본 언론 대서특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클일본 언론들이 29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대서특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1면과 3면에 걸쳐 관련 뉴스를 실었다.

특히 3면 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조선 공장 일대 모습을 르포 형식으로 다루면서 '급속한 저출산, 일본의 미래인가'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1면에서 출산율 통계를 전하고서 15면에는 한국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박스 기사를 실었다.

닛케이 저출산이나 노동력 부족

은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 공통의 과제지만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은 1.26명으로 한국의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심각성 측면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대응 성패는 일본 대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 저출산과 혼인 감소가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는 표현 일 것이라며 자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1면과 3면, 9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 신문은 집값 급등과 치열한 학벌 경쟁 등으로 삶이 힘들고 젊은 세대의 불안이 큰 것이 일본과도 겹치

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스스로 "출산 파업 중"이라는 정소연(41)씨의 인터뷰도 게재했다.

SF소설 작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는 이 인터뷰에서 "15년 전 결혼할 때는 당연히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출산 파업을 선택한 이유로 경력 관리의 문제, 육아 환경, 사회 분위기 등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 통계청은 전날 발표한 통계에서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다시 역대 최저를 경신했고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0.70명선마저 붕괴했다고 밝혔다.

eva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1st - MAR. 7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ELIZABETH KIM OF GUILTY GOOD PASTRIES: K-PIE RECIPE

This innovative dish celebrates her Korean-American roots while offering an umami-packed upgrade to comfort food.

김치 에브리데이의 새로운 참가자, 엘리자베스 김 님의 케이파이 레시피를 H 마트가 소개합니다.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29.99 BOX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Israel Orri Mandarin 이스라엘 오리 만다린 LB \$2.99	Sweet Potato 햇 고구마 LB \$2.49 NEW CROP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FOR 3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틀포 망고 BOX \$19.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Eye Round 생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2.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3.33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Jiri Anchovy (Small) 통통배 어린이왕 지리멸치 PRODUCT OF KOREA 8 OZ/PKG \$7.99	TONGTONGBAY Jiri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PRODUCT OF KOREA 8 OZ/PKG \$7.99
TONGTONGBAY Frozen Half Cut Crab 통통배 냉동 절단꽃게 3 L SIZE/1.5 LB/PKG \$6.99	Frozen Small Octopus 주꾸미 LB \$4.99
TONGTONGBAY Frozen Cooked Shrimp 통통배 쿡새우 100-200'S 1 LB/PKG \$6.99	Live Turbot 살아있는 참갈어 PRODUCT OF KOREA/LB \$19.98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1.99	KWANGCHEO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BOX \$11.99
PICKY EATER Milkfish Belly Congee 피키 이터 밀크피쉬 벨리 죽 1.1 LB \$8.99	H MART Mango with Sticky Rice H 마트 망고찰밥 5.29 OZ \$2.99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2.99	CHUNGJUNGONE O'Food Bap Cooked White Rice 청정원 오후드 즉석밥 7.04 OZ X 12 EA BOX \$11.99	HAIOREUM Soy Sauce 해오름 간장 BREWED WITH KELP /MADE TO STIR FRY 60.87 FL OZ \$3.99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5.99	BEYOND THE OCEAN Fried Fish Cake 바다너머 부산어묵 2\$7 FOR 1.76 L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9.99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9.99	TONG TONGBAY Seasoned Dried Filefish 통통배 감칠맛 나는 맛있는 쥐포 12 OZ \$8.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형그리 강냉이 5.99 OZ \$1.99
CROWN Butter Waffle Cookie 크라운 버터와플 쿠키 11.1 OZ \$3.99	HAIO Milkya (Cream Soda & Yogurt Flavored Soft Drink) 해오름 밀키야 8.45 FL OZ X 6 CANS/PKG \$3.99	KüHAUS Electric Separable Kitchen Blender 쿠하우스 분리형 전기 만능 믹서기 1.2 L JAR + 0.2 L CHOPPER -\$39.99 \$29.99 WHITE EA	HELLO! Stainless Lunch Box 헬로! 한칸 스텐 도시락 PINK/BLUE \$9.99 \$6.99 20 X 14 CM EA	HELLO HOME Soft Roll Tissue 헬로홈 소프트 휴지 30 ROLLS/PKG -\$19.99 \$13.99

UNTIL MAR. 7, 2024

JINGA
 오늘 만든 오뎅볶음
KOREAN PAN FRIED FISH CAKE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6.99
\$4.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율기 김 978.694.2043 yulgi@bostonpremierrealty.com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디디 주 617.780.7839 didi@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김 401.935.3397 eunjung1@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o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jung@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bostonpremierrealty.com	 마사 김 213.503.0397 masa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선호 김 617.815.326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김 781.839.3412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현숙 김 781.899.1214 hyeon@bostonpremierrealty.com	 지은 김 617.515.1162 jieu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김 617.645.6728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04.841.5102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8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988@gmail.com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6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복귀시한 D데이, 전공의 일부만 병원으로... "불이익 없나" 문의도

복귀상황 지역별 편차...집단사직 사태 열흘째, 환자도·의료진도 지쳐간다
길어지는 의료공백...현장 지키는 의료진 피로도 심화, 진료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29일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일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복귀 상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직서를 내기도 의료 현장에 남아 있거나, 소속 병원에 동료들의 복귀 현황과 복귀 절차 등을 묻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열흘째 이어지면서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고 환자 진료도 제한되고 있다.

◇ 사직서 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일부만 복귀'

사직한 충북대병원 전공의 121명 중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전공의는 총 6명이다.

제주지역 6개 수련병원에 배치된 전공의 141명 중 108명이 사직서를 내고 무단결근했으나 전날까지 제주도병원과 중앙병원 소속 2명이 복귀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이유로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성모병원에서는 지난 26일 내과 전공의 1명만 업무에 복귀했다.

인천에서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 중 448명(82.9%)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는 343명이 중 지난 23일 인천세종병원 인턴 3명만 사직서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는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90명 중 360명(92.3%)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는 매일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8~9명 정도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기도 진료와 사정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6개 종합병원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대구 수련병원 6곳의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조사한 결과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294명이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일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전공의가 출근하고 있지만 매일 근무 인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사직서 내기도 병원 남거나 복귀 관련 문의도

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여명이 병원에 출근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대전 유성선병원에서는 전공의 2명이 사직서를 내기도 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고대안산병원과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일부 전공의

들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복수의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른 전공의들이 복귀 현황과 사직서에 대한 행정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문의 수 등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집단 사직 열흘째...전국 응급실 환자 제한적 진료

충북대병원 입원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50%대로 떨어졌으며 야간 응급실 안과 진료 등 일부 과는 진료가 불가하다.

응급실과 도내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선 이탈 전공의 자리를 전문의들이 당직으로 채우고 있고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40% 줄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각각 50%, 36%에 머물고 있으며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 중이다.

3월에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

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

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본부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게 된다.

soho@yna.co.kr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FAMOUS fishcakes by SAMJIN

삼진
어묵
SINCE 1953

삼진어묵 특판전

MAR. 1st - MAR. 7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SAMJIN
Swimming Crab
Fishcake Skewer Soup

삼진어묵
통꽃게 꼬치어묵탕 **\$ 9.99** ~~\$14.99~~
1.53 LB

SAMJIN
Specially Assorted
Fish Cake

삼진어묵 x H MART
모듬어묵

~~\$10.99~~
\$ 7.99 2.23 LB



SAMJIN
Shrimp Roll
Fishcake Skewers

삼진어묵 통통 야채
새우봉꼬치

~~\$8.99~~
\$ 5.99 1.21 LB



SAMJIN
Fishcake
Skewers

삼진어묵
간편 꼬치어묵

~~\$13.99~~
\$ 6.99 2.2 LB



SAMJIN
Fishcake Bar
6 Pack

삼진어묵
어부의 바
3종 2세트

~~\$8.99~~
\$ 5.99 16.9 OZ



SAMJIN
Crispy Chili Pepper
Fishcake
Croquettes

삼진어묵 바삭한
팽초 어묵크로켓

~~\$8.99~~
\$ 4.99 12.7 OZ



SAMJIN
Crispy Shrimp
Fishcake
Croquettes

삼진어묵 바삭한
새우 어묵크로켓

~~\$8.99~~
\$ 4.99 12.7 OZ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김고은 "포스 있는 무당 캐릭터, 어설피게 표현하긴 싫었죠"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파묘'는 예고편 공개 때부터 배우 김고은이 곳을 하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하게 된 사람들이 겪는 기이한 일을 그린 이 영화에서 젊은 무녀 화림 역을 맡았다.

서슬 퍼런 식칼을 든 채 신들린 듯 춤을 추다가 술을 얼굴에 바르는 대살극 장면은 '파묘'의 백미다.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포스 있고 아우라 넘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역할을 어설피게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26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고은은 화림 역을 준비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캐스팅이 확정된 뒤 몇 달간 '반(半) 무당'으로 살았다. 굿판을 기웃거리며 무당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혼을 부를 때 외는 경문을 통째로 달달 암기했다고 한다.

유명 무속인인 고춘자 씨의 며느리를 선생으로 모시고 그의 집에서 밥을 먹으며 굿의 과정을 배우기도 했다.

김고은은 "무속신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색하게 표현할까 봐 걱정이 컸다"며 "아우라는 사소한 것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디테일한 동작을 특히 신경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굿을 하기 전 몸을 살짝 떠다거나 목을 꺾는 그런 것들이요. 휘파람은 왜 부는 건지, 징을 칠 때는 어떻게 채를 잡는지도 하나 하나 선생님께 다 여쭙봤어요. 영상통화로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찰하고도 몰랐죠. 하하."

극중 화림이 혼부르기 의식을 치르는 장

면 역시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실감 나게 표현됐다.

"여기서 어설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김고은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던 장면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워낙 중압감이 큰 데다 외위야 하는 대사와 동작이 많았던 탓에 무서움조차 느낄 틈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혹시나 (촬영하다가) 진짜로 신을 받으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은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자문해준 무당은 "우리과는 아니다"라며 김고은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화림 역은 30대 여성 배우가 쉽사리 도전하기 쉬운 캐릭터가 아니지만, 김고은은 전혀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제게 역할을 제안해준 장 감독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유형의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가 많지도 않고 또 그걸 제가 맡기도 어렵잖아요. 더 다양한 역할에 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 단정 짓지 않거든요. 제가 한계를 정해 놓으면, 실제로 한정적인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파묘' 개봉 이후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그는 노력의 대가를 톡톡히 얻고 있다.

풍수사 상덕 역의 최민식, 장의사 영근 역의 유해진 등 선배 배우들과 단단한 사이가 된 것은 덤이다. 이들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술잔을 기울인다고 한다.

김고은은 "보통 촬영 현장에선 낮간지러운 칭찬을 잘 안 하는데, '파묘'에선 한 테이크를 끝낼 때마다 선배님들이 좋았던 부분을 말씀해주셨다"면서 "제가 더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라며 웃었다.

작품 자체도 흥행하면서 김고은은 히트작에 대한 갈증도 채우게 됐다.

개봉 나흘째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출연한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은 윤계준 감독의 '영웅'(327만여명)이다.

김고은은 "하루에 몇 명이 '파묘'를 봤다

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든다"며 얼떨떨해했다.

"무대인사를 하러 극장에 들어가면 항상 객석이 꽉 차 있었어요. 좋은 걸 넘어서서 묻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숫자가 영화 스코어로 나오니까 놀랍기도 하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끝까지 잘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rambo@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신문 광고 Yoon Kim

2020년, 당시 KASOM40대 회장이던 장우석 변호사와 나는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에서의 법률, 세무, 회계 서비스를 하는 프로페셔널 오피스를 기획하였고, 나는 장우석 변호사에게 투자금을 보냈다. 2021년 4월 23일, 제41차 KASOM 이사회 회의 (당시 서영애 회장)에서 나는 그 투자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오해를 일으켜서, 마치 내가 그 투자금을 KASOM에게 기부한 것처럼 되었고, 장우석 변호사가 이 기부금을 개인 목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오인되었다. 이로 인해 제41차 이사회들은 장우석 변호사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KASOM 기부금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나, 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나의 발언은 장우석 변호사가 횡령, 유용 혹은 서비스비용의 일부분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가 한인 이사회와 "보스턴 코리아"에 전달한 것들중에서 장우석 변호사가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장우석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당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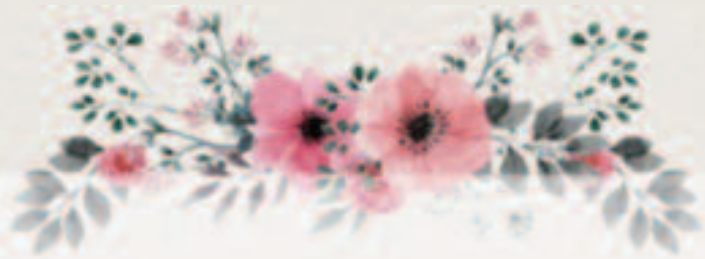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2024 봄] 교사 연수회 · 사은회

“두근두근” 기다려지는 한국학교 수업



2024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2:00-8:00

장소 :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1부 : 교사 연수회

전체강연 1 : 노지은(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전체강연 2 : 김경호(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우수교사 · 장기근속 교사 ·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시상식

2부 : 교사 사은회

저녁식사

우수배우자상 시상식

추억의 전통 놀이

경품 추첨

참가신청 : QR코드(구글폼 작성) 2월 24일까지



참가비 : \$15/1인 (학교 단위로 납부요망), 교사 가족 무료

1부 교사연수회 동안 동반자녀 놀이방 운영됩니다.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청

 NAKS-NE 이사회 · 교장단  보스턴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78) 주식투자의 첫걸음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몸과 마음도 옛날 같지 않다. 노후대책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지만 주식시장이 두렵고 무섭다. 이럴 때 ‘평생 보장연금’ 이라고 말하며 이것저것을 보장 (Guarantee)한다고 하면 정확한 속 내용을 모르면서 투자하게 된다.

제대로 된 투자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재정칼럼’ 을 연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라는 책도 출간했다. 미국 생활에 필요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보험상품, 학자금 투자, 어뉴이티, 세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등 모든 재정 관련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특히 숨어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진실과 수수료와 투자 경비 등을 설명한 책이다.

주식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정보가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본다.

*투자 결정할 때 마음 (Emotion)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별회사 투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

다.

*5년 이내에 필요한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그만큼 투자 위험성 역시 높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주식투자 위험을 적게 하려면 채권투자와 현금 보유는 필수이다.

*투자의 위험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투자하면 위험성은 항상 동반한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사람도 투자 선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투자 방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투자자 누구나 한때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요행 (Luck)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모른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다.

*투자자가 똑똑한 것과 주식투자 결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명품 등으로 돈 잘 쓰는 친구를 보면 장기 투자로 제대로 하는 투자 방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어느 특정한 종목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인덱스 펀드 (S&P 500 Index)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수익률과 거의 같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팔고 나오면 투자 손실로 바로 이어진다.

*데이 트레이딩 (Day Trading)은 매우 어렵다. 시간문제일 뿐 결국에는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식 대박은 흔하지 않다.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전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주식시장 통계를 연구해서 미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그저 허망한 꿈이다.

*복리 효과는 매우 놀랍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루 (Boring)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워런 버핏이 절대 아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간절한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않는다.

*보험은 투자가 아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으면 폭락할 때도 있다.

*미래 예측은 어렵다. 주식 시장 예측은 더욱 어렵다.

50년 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90%가 개인 투자자였다. 현재는 90% 이상이 기관 전문 투자자 (Institutional Investment) 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다. 한 개인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거대한 금융회사 전문가들과 경쟁하겠다는 것과 같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과거 주식시장의 이해, 감정 조절 (Discipline), 겸허한 마음, 그리고 은근과 끈기이다.



화랑도 (花郎徒)와 성 (性) 그리고 태권도 (跆拳道) 화랑세기 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 (1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8세 풍월주 문노는 미실과 세종부부의 중매로 마침내 윤공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윤공이 염려하였던 다섯가지의 문제점은 그다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나이 예순이 넘은 진중은 곧 사망하였고, 윤공을 원하였던 사륜태자는 왕 (진지왕)이 되어 많은 후궁들과 정사情事에 빠져 정사政事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삼국유사에 전하는 ‘도화녀와 비형랑’ 에 대한 설화일 것이다). 그리고 윤공의 아버지 거칠부는 문노와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문노가 비록 위품은 없었지만 그가 닦은 문무의 기량과 학덕이 단연코 으뜸이었기에 사윗감으로 놓고 싶지 않았으리라... 결과적으로 문노는 윤공과의 결혼으로 골품을 얻었으니 윤실 (윤공이 동륜태자와 낳은 딸)을 비롯한 친척과 친지들과의 관계도 말끔히 해결되었다.

문노는 미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뚜렷한 연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문맥들을 연결해보면, 그는 남편을 두고 ‘다채로운’ 색공色供과 색사色事를 한 미실이 못마땅했다. 그러자 윤공은 간언諫言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8세 풍월주 문노 조 인용), “군공 (문노)은 세종전군의 신민인

데 미실공주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군이 공주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군공이 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군공의 남도가 만약 군은 옳다고 하고 나를 그르다고 하면 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문노는 “선모 (선모 (화랑도의 어머니로 풍월주의 부인이 맡는다. 윤공을 의미한다)는 미실공주와 같이 잘못된 일이 없으니 남도들이 어찌 비난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나 윤공은 다시 힘써 미실의 잘못을 감싸며 말했다. “사람이 모두 장단과 과실이 있는 것은 형세가 부득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공은 장기간 곧은 무도정신과 전장에서 군법을 철석같이 삼고 살았기에 처자 (가족)와의 즐거움이 없는 것은 세상과 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군공의 아들을 가졌는데, 군이 일념으로 뜻을 굳게 지키고 미실공주의 뜻에 거스른다면, 이 배속의 아이는 장차 어떤 처지에 있겠습니까? 아이의 좋은 아버지로써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문노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와 모든 남도들은 의지와 기개로 선모를 받드는데, 선모는 세상일로 나를 감싸는 손은 다정하지만 사사로움입니다. 정이 사사로이 행해지게 되면 의가 사라지고 무리는 흠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선모가 신민에게 허락한 뜻은 가히 죽음으로써 맹세한 것입니다 (진골 신분의 윤공이 여러가지 불이익을 무릅쓰고 위품이 없는 문노와 결혼한 것을 말한다). 차라리 따르는 무리를 절연할지언정 선모

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사사로움 인정에 끌려야 하겠소?” 라고 물으니, 윤공이 웃으면서 말했다. “정정이 아니면 군과 내가 어찌 색사色事로서 서로 합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의義는 정情에서 나오고, 정은 지志에서 나오니, 세가지는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정大情은 의가 되고 큰 사사로움大私은 공公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무리에게 사사로움 없으면 무리를 거둘 방법이 없습니다. 군은 어찌 일찍이 사사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군과 동침한 밤에 나는 대철우大鐵牛 꿈을 꾸었는데, 반드시 호랑이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그대의 영웅스러움으로 어찌 ‘호결豪傑’ 을 낳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리들 또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음은 의義가 아닙니다. 군과 더불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정情의 순수함입니다. 아울러 무리들이 군에게 의지하는 것은 정情에 얽힌 때문입니다. 청컨대 내 말을 들어 내 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문노는 윤공의 말에 크게 깨달았다. 선모 (윤공)는 성인이고 자신은 어리석다며 서로의 정을 더욱 무르익혔다. 결국 문노는 미실을 섬기고 설원랑도 상선 (전임 풍월주)으로 받아드려 주었다.

대철우 태몽으로 태어난 그들의 장남은 대강大剛이다. 후일 제상을 지냈다는 기록이 화랑세기에 전하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는 그의 벼슬에 관한 기록이 없다. 대적할 자가 없었던 신기의 격검술을 보유했던 문노는 마흔이 되어서 결혼한 후 ‘공처가’ 수위를 넘어 ‘팔불출’ 의 경지에 이르렀다. 술과 여색을 멀리하며 무도정신과 군율로만 살았던 문노는 부인 윤공의 설득과 간청으로 정情에도 얽메이는 부드러운 남자로 변신하였다. 만사를 번번이 윤공에게 물어서 처리했으니, 남도들은 그를 ‘초년의 기상이 없어졌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도 지난날 세종전군이 미실공주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보고 흥을 보았는데, 나도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 너희들 또한 결혼하면 다 알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남편을 택한다면 문선화文仙花, 처를 취한다면 윤공남주’ 라는 말이 돌았다.

문노와 윤공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중매장이 미실이 진평왕에게 청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 부부가 되는 형식을 취했으며, 왕과 세종전군, 미실 등 진평왕을 옹립한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포석사佛石祠에서 치루어진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아 그들의 결혼식은 679년 이후에 치루어졌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 (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29TH - MAR. 7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OUR BBQ PICK!

Frozen Pork Single Rib Belly

냉동 삼겹살
FAMILY PACK

\$3.33
LB



KÜHAUS

Retro 2-Slice Toaster

레트로 토스터기

IVORY/MINT ~~REG. \$24.99~~

\$14.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삶을 포기한 여자가 삶이 절실한 남자를 만났을 때... '로기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내년 2월이요? 기카면 그때까지 어카고 지갑니까?"

벨기에 정부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한 남자 기완(송중기 분)이 다음 면접은 몇 달 후라는 통역사의 말을 듣자 놀라 묻는다.

"잘 버티셔야죠."

통역사는 뭘 그런 당연한 걸 묻느냐는 말투로 답한다.

김희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의 주인공 기완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풍찬노숙을 시작한다.

누군가 먹다 버린 빵을 먹고 공병을 주워 팔다가 늦은 밤에는 공공화장실에 지친 몸을 뉘다. 거리에서 백인 남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탈북자인 그는 어머니와 중국에 머무르다 공안에게 잡히기 직전 벨기에로 도망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병원에 관 돈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어머니의 유언은 "살라"였다.

기완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기를 쓰고 살려 한다.

그러나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란 힘겹기 그지없다.

생존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사랑은 싹튼다. 기완이 자기 지갑을 훔친 한국 이민자 마리(최성은)를 만나게 되면서다.

마리 역시 몇 년 전 어머니를 여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하지만 기완과는 반대로 그는 삶을 일부러 망가트리면서 스스로 형벌을 내린다. 마약에 손을 대고 불법 사격 도박장을 기웃거리며 돈을 번다.

기완은 닳은 듯 다른 마리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 마리도 자신과는 달리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한 기완에게 호기심이 생긴다.

낯선 땅에 떨어진 난민의 고된 삶, 생명관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의 두 축을 이룬다.

기완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탈북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리한 여정과 마리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동시에 담겼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내내 위태롭게 그려진다.

기완은 벨기에에 남지 못하면 북한으로 강제 추방당해야 하고, 마리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영화는 신동엽문학상 수상작이자 한국문학가협회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에 선정된 조해진의 장편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뼈대로 했다.

소설의 설정을 다수 차용했지만, 탈북자의 운명과 연대를 차분하고 세심하게 그려낸 원작에 비해 영화는 멜로에 더 공을 들인 듯하다.

이 때문에 기완 개인의 삶도, 기완과 마리의 사랑도 어정쩡하게 담긴 듯한 느낌을 줘 아쉬움을 남긴다.

그동안 장르 영화에 치중했던 넷플릭스가 '로기완'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배우진의 연기 역시 흠잡을 구석이 거의 없다. 궤변이 없는 탈북자로 변신한 송중기를 비롯해 불안정한 청춘을 지나는 마리 역의 최



성은, 북한 말투와 미묘하게 다른 한 듯 표현했다. 3월 1일 넷플릭스 공개. 131분. rambo@yna.co.kr

3월 3일 - 3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깨끗하게 정리해야</p> <p>● 운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은 욕심이 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p>소띠 전화위복의 계기로</p> <p>● 운수: 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한 길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p>	<p>범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p> <p>● 운수: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금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7일 길일. 6, 9일 주의.</p>
<p>토끼띠 다시 한번 점검해야</p> <p>● 운수: 자기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 금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하거나 이루는 일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8일 길일. 7, 9일 주의.</p>	<p>용띠 가만히 있어야</p> <p>● 운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고집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 9일 길일. 4, 8일 주의.</p>	<p>뱀띠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p> <p>● 운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 금전: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단골이 찾아와 매상을 올려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7, 8일 길일. 3, 9일 주의.</p>
<p>말띠 장기적인 안목으로</p> <p>● 운수: 모든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p>	<p>양띠 아름답고 밝게 보는</p> <p>● 운수: 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5, 8일 주의.</p>	<p>원숭이띠 둘다리도 두들겨보면서</p> <p>● 운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둘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애정: 소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소소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9일 길일. 3, 6일 주의.</p>
<p>닭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p> <p>● 운수: 늦춰서 좋은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무만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6일 길일. 4, 7일 주의.</p>	<p>개띠 희망적인 결과를</p> <p>● 운수: 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p>	<p>돼지띠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p> <p>● 운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 금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차신을 절해야 이면저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셀린 송 '패스트 라이브즈', 美 독립 영화상 작품상·감독상 석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이나 특파원 = 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 송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가 미국 독립영화상인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휩쓸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26일(현지시간) 미 독립영화계의 비영리단체 '필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전날 밤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제39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패스트 라이브즈'가 최고상인 최우수 장편 영화상(Best Feature)과 감독상(Best Director)을 받았다.

시상식의 맨 마지막 순서인 최우수 장편영화상 수상작으로 '패스트 라이브즈'가 호명되자 한국배우 유태오와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 등 출연진은 모두 환호하며 무대 위에 올라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송 감독은 격한 감정을 누르며 수상 소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화에는 동양적인 개념인 '인연'이 있는데, 이생에서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전의 수많은 생에서 서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 팀과 그런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송 감독의 데뷔작인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며,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뤄졌다.

송 감독은 한석규·최민식·송강호 주연의 영화 '넘버 3'(1997)로 유명한 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날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각본·연출을 맡고 스티븐 연 등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TV 부문 '최우수 신작 시리즈'(Best New Scripted Series) 상을 받았다.

또 이 영화의 주연배우 엘리 윈은 남녀 배우를 통틀어 주는 주연배우상(Best Lead Performance In a New Scripted

Series)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원래 미국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한정하다가 2020년 시상 영역을 TV 시리즈로 넓혔다.

앞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이정재가 이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았으며, 영화 '기생충'은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BTS 제이홉 신보 타이틀곡은 '뉴런'...정국·개코·윤미래 참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다음달 29일 발매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신보에 멤버 정국과 그룹 르세라핌의 허윤진 등이 참여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제이홉의 스페셜 음반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HOPE ON THE STREET VOL.1) 수록곡 6곡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했다.

타이틀곡은 '뉴런'(NEURON)으로, 곡명은 제이홉이 데뷔 전 몸담았던 댄스 크루의 이름이다.

장르는 제이홉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2000년대 올드스쿨 힙합으로, 다이나믹듀오의 개코와 래퍼 윤미래가 피쳐링에 참여했다.

'아이 원더...'('i wonder...')는 일렉트로 펑크 기반의 댄스이다. 방탄소년단 정국도 피쳐링으로 함께 마음을 전했다.

'아 돈트 노우'('i don't know')와 '록 / 언록'('lock / unlock')은 각각 허윤진과 미국 프로듀서 베니 블랑코·나일 로저스가 참여했다.

이밖에 제이홉이 지난해 미국

래퍼 제이콜과 협업해 발표한 '온더스트리트'(on the street)의 솔로 버전, 2022년 발매한 솔로 앨범 수록곡 '왓 이프...'('what if...')의 댄스 리믹스도 담겼다.

제이홉이 전곡 작사에 참여한 이번 음반은 다음달 29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 전 준비해둔 멤버별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팬들을 달라고 있다.

군복무 중인 제이홉은 오는 10월 제대를 앞두고 있으며, 입대 전 이번 음반을 준비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2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여행이 주는 삶의 또 다른 선택

우리는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날마다 허덕이다 내일을 맞는다. 내일의 오늘도 어제와 별다를 것이 없는 비슷한 또 하루를 지내기가 쉽다. 하지만 어찌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있을까. 다만,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의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찾으려 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나를 맡겨버리는 어리석음. '아마도 그것마저도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운명지어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체념이나 좌절 그리고 포기끝으로 끝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삶의 가치가 확고하다면 삶의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절대가치를 그 자체에만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과 운명'이라는 과제가 삶에 주어질 때,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 나라는 것에 집착하듯 '비교'를 떠올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 운명에 맡긴 채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러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운명이

란 것에 순응하면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 가 아닌,

"어떻게 사는가."

"그 운명지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가끔 '여행'을 떠올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혼자만의 호젓한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린다. 가끔은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있었을까."

이럴 때, 나는 가끔 '선택과 운명'을 또 떠올려 본다. 내가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이다. 두려움에서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고 미뤄두고 미련을 가지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운명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 나 자신의 용

기가 없어서 낮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만, 선택 밖에 놓였던 나의 삶과 가뭇두었던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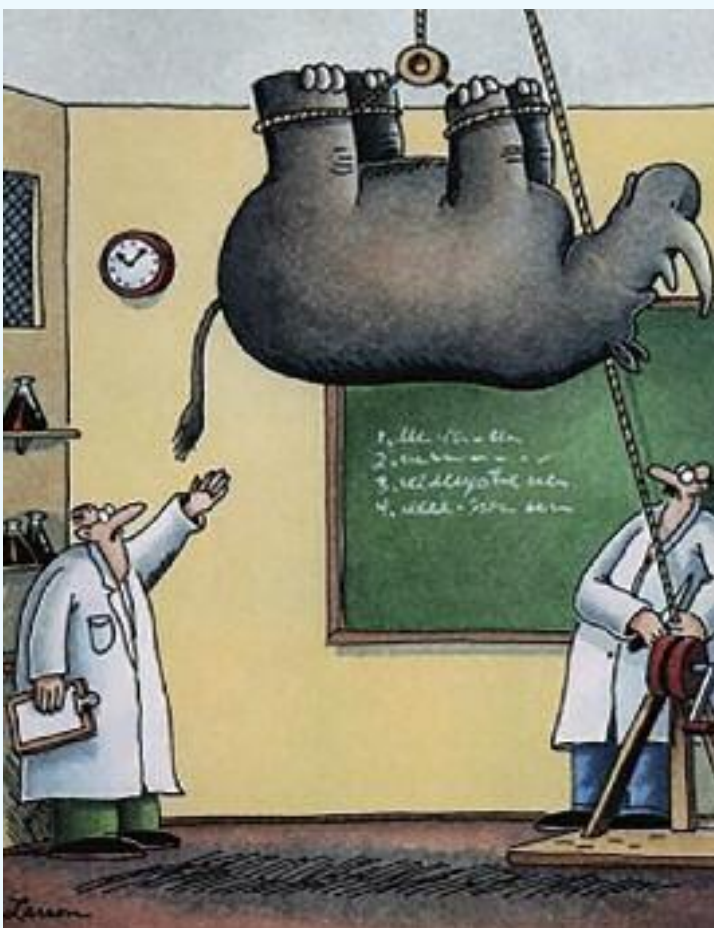
"무참히도 짓밟아 버린 나 자신 속의 깊은 또 다른 나를..."

보이지 않지만 억울해서 울부짖는 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억울한 자신의 분노는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꼭꼭 담아두기만 했던 '화'의 덩어리는 그렇게 쌓여서 풀어지지도 않을 만큼... 일찍이 그 화를 표현하고 자신이 식혔어야 했을 덩어리였다. 그 식이지 못한 화들이 가끔 꿈틀거리면 자신을 들볶고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그 화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옛날 '화병'에 앓고 속앓이를 했듯이, 그 많은 나라 중에 주부들이 '화병(火病)'을 심히 앓았던 나라이기에 그 병명을 한국말로 'Hwabyeong'이라 한단다.

조금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살기를 소망한다. 화를 참지 말고 쏟아내되 지혜로운 선택으로 풀어내길 말이다. 담아두면 병이 되어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그 끊는 속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은 커지고 이해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할 오해의 발단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울화가 치밀고, 속상함이 밀려올 때는 여행을 하자. 가까운 바닷가에라도 훌쩍 떠나 만나질 바다와 만나 얘기라도 하고 돌아오면 가슴이 훑트이기도 한다. 이렇게 트인 마음에서 서로 부부간에 대화라도 시작된다면 한결 부드러운 말이 오가고 마음이 통하게 될 것이다.

늘 곁에서 삶을 맞대고 의지하며 사는 부부가 무슨 원수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등 돌리며 무덤덤하게 살아야 할까. 여행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도 멀리도 생각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는 마음의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연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만나주고 읽어주고 안아주며 치유해주는 놀라운 신비와 경이가 있다. 그 느낌만으로도 내 안의 아픈 상처는 치유를 얻기도 한다. 내 말을 실컷 토해 놓으면 들어주는 자연은 언제나 고마운 친구이다. 혼자 아닌 우리의 세상을 말간 영혼의 눈을 떠바라보는 일. 바로, 여행이 주는 삶의 또 다른 선택인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관찰의 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중기起重機를 이용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선생도 거중기擧重機를 발명했다. 수원 화성을 축성할 적인데 요긴히 사용할 수있었다. 천재적 공학재능은 과연 남다르다. 그의 형이었던 정약전선생의 천재성은 아우보다 못하지 않다. 선생의 관찰력은 탁월했던 거다. 선생은 저서로 자산어보란 책을 남겼다. 기약없고, 무묘한 귀양생활을 해양학과 어류관찰로 버티려 했을 터.

형 정약전선생은 자산어보의 길이라 했다. 형의 마음이 바다로 향할 적에, 아우 다산은 목민심서의 길이라 했던가. 피차 다른 길은 걸었던 거다. 김훈의 소설 흑산에 나오는 대목이다.

"길은 늘 앞으로 뻗어 있어서 지나온 길들은 쉽게 잊혀지지만, 돌아올 때는 지난온 길이 앞으로 뻗었

고, 갈 때 앞으로 뻗어 있던 길이 다시 잊혔다."

길인데, 길이라면 영화 자산어보에도 나온다 했다.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으께요. 흥어가 땀기는 길은 흥어가 알고 가오리가 땀기는 길은 가오리가 아닌 게.' 젊은 어부가 한 말인데, 한 날 물고기인 흥어도 가오리도 가야하는 길을 안다는 거다. 어부나 물고기나 가야하는 길은 살아가는 길일터. 먹고 사는 일에도 길을 알아야 하고, 관찰과 지식이 으뎌지는 길이라는 거다. 이 또한 해양 과학이라 여긴다.

지나온 길들을 쉽게 잊혀지기에 모두 기억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기록한다면 잊혀질 망정 재생할 수는 있다. 기록정신은 만화에 서도 나오는데, 칠판에 쓰여진 분필 글씨들이 그러하다. 연구원의

손에 든 클립보드 또한 그걸 증거하고 있다. 실험은 10시 10분경에 행해 졌다.

정치인들이야 가설을 세우고 예상을 할 수있겠다. 바라고 가고자 하는바는 예정할 수는 있는데, 막상 실험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투표가 실험일 수는 있겠는데, 정치인들은 선거에 정치생명을 건다 하던가. 낙선이라면 낙심하며 투덜덜 텐데, 밀쳐봐야 본전인가? 거중기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아프기는 할까. 심한 부상을 당할 게 틀림없다는 말이다. 이게 정치인들이 가는 길이라면 덧불일 말은 없다.

한국에선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모두 당선되시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누가 9:57)

과학자는 실험과 실측을 기초로 한다. 실험없는 결론은 헛되다.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실험하며, 결과에 따라 결론을 맺는 거다. 이런 과정을 연구라 하는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역시 헛된 일이 된다.

만화 한장이 웃습다만 씩씩하

다. 공룡의 낙하실험 중이다. 공룡에겐 심한 매달기 고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 과학자가 손에 쥔 밧줄을 풀 때, 공룡의 등이 먼저 바다에 닿을 것이다. 쿵하는 굉음이 들릴텐데, 공룡은 부상을 입을 게 틀림없다.

공룡 매달기. 그림에선 간이 기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s@huras.kr / www.huras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신세계서울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십견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질환 ‘오십견’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신세계서울병원 이 재민 병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러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질환이 바로 ‘오십견’으로 어깨가 아파다고 하면 ‘오십견’이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은 오십견 이외에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 다양한 질환이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병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흔히 말하는 오십견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 50세 경에 어깨가 아픈 경우를 통칭하던 말이다.

이 오십견 중 가장 흔한 원인이 회전근개 증후군이고 두번째 흔한 원인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최근에는 오십견을 유착성 관절낭염과 동의어로 많이 쓰고 있어 여기에서도 오십견이라 표현하도록 하겠다.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은 동결견이라고도 불리며 어깨관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막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 및 유착이

발생하여 어깨가 굳게 되는 질환이다. 오십견과 자주 헷갈리는 회전근개 증후군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인 4개의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회전근개의 손상, 파열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오십견의 원인으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뇨 또는 갑상선 질환 등의 내분비계 질환에서 발병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외상 또는 이로 인한 장기간 팔 고정, 회전근개파열 및 석회화건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오십대 환자가 가장 많지만 전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고 여성에서 더 흔하다.

오십견의 증상으로는 어깨가 모든 방향으로 굳게 되어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게 되고 굳은 관절은 그 자체가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특징을 보인다. 야간통이 심하며, 뒷자리에 손을 넣거나 머리를 빗을 때, 등을 굽을 때 움직임이 제한된다. 이와 다르게 회전근개 증후군은 보통 팔의 가동범위가 정상이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높이 정도에서 통증이 발생했다가 팔을 더 올리면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팔을 내릴 때 힘이 약해서 팔이 떨어지거나 팔을 스스로 올릴 때 어려운 경우도 있다. 스스로 동작을 취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자기 진단이 가능하겠다.

오십견을 진단받았으면 스트레칭 운동을 통

해 통증 없이 관절가동범위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때 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운동치료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가동범위를 회복하여도 꾸준히 수개월 정도 운동을 유지해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꾸준히 운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다.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해 재발을 한다면 관절수동술 및 관절경하 관절낭유리술이라는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 관절수동술은 브리즈망이라고도 불리는 치료로 수술이나 절개없이 굳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간단한 시술이다.

수면마취 하에 염증완화 약물주사를 투여하고 전문의가 직접 환자의 어깨를 움직여 굳어 있는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이다. 시술시간이 10분 이내로 매우 짧고, 경과에 따라 하루 입원하거나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가동범위가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어 운동을 하지 못해 재발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관절낭유리술은 부위마취를 하고 관절경을 이용해 직접 유착된 관절낭을 절개해주는 치료이다. 관절수동술에 비해 좀 더 침습적이지만 재발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두가지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이나 관리는 필요하다.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같은 동

작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근육,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 주변의 조직이 경직되어 어깨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트레칭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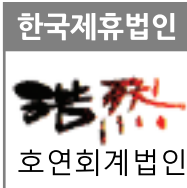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이 있을 때에는 먼저 오십견을 떠올리기 쉽지만, 회전근개 증후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십견”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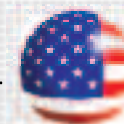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105 주년 3.1 절 기념 행사

1919.3.1 - 2024.3.1

“ 3.1 삼일운동

대한민국만세

행사 일정 : 2024 년 3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행사 장소 : 보스톤 총영사관 ”

300 washington st #251. Newton. MA 02458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1부 . 오전 10시 삼일절 기념식
2부 . 오전 11시 한인회 총회.

행사 주최 :

-  보스톤 대한민국 총 영사관
-  매사추세츠 한인회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뉴 햄프셔 한인회

행사 협찬 :

보스톤 **코리아**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04.01.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Voting Place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첨부 할지 지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